

#해시태그

해(解,답)가 없는
시장을
태연하게
그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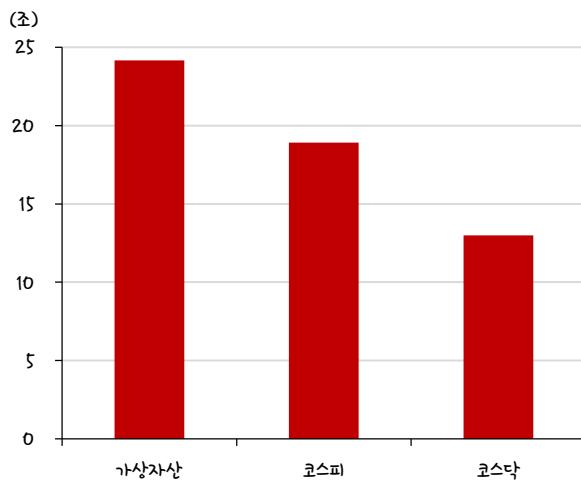


주식전략/시황. 한대훈 / 3773-8515, handaeoon@sksecurities.co.kr

2021/0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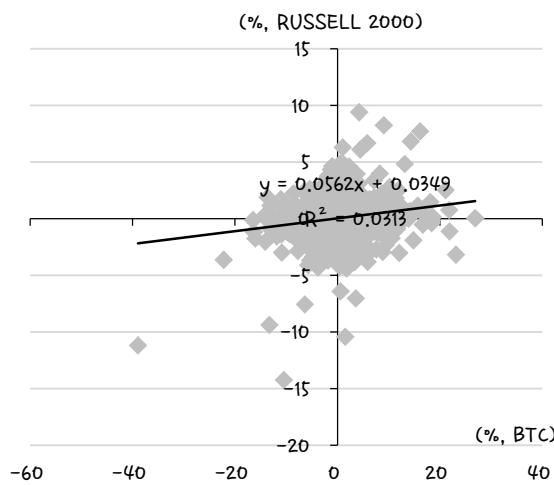
코스닥과 코인

가상자산과 코스피, 코스닥 일일 거래대금 비교



자료: Quantwise, 국내 4 대 거래소, SK증권 /주. 코스피와 코스닥은 일평균

비트코인과 러셀 2000 일일 수익률 분포



자료: REFINITIV, SK 증권

코스닥이 -2% 넘게 빠졌다. 같은 날 가상자산 시장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주요 알트코인들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반된 시장 분위기를 보여줬다. 이더리움은 처음으로 \$3,000 달러(400 만원)를 돌파했다. 1,000pt를 돌파한데 따른 가격부담, 공매도 재개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코스닥의 낙폭을 키웠다. 그리고 다시 가상자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을 떠나 가상자산 시장으로 떠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일일 거래대금을 비교해보면, 가상자산 시장의 국내 거래대금은 24 조원 이상을 기록하면서 코스닥의 두배에 육박하고 있다(코스닥의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13 조).

가상자산의 현재 기대수익률이 코스닥보다 높은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다시 가상자산 시장이 뜨겁다고 코스닥의 개인 투자자금이 모두 가상자산 시장으로 유입됐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다. 국내와 해외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은 현재 8% 수준이다.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한창 시장이 뜨거울 때는 20%를 출찍 넘기던 점을 생각해보면 아직 국내시장의 열기가 다시 뜨겁다고 보기는 힘들다. 얼마전 비트코인이 8 천만원을 넘어섰을 때는 김치프리미엄이 20%를 넘었었다.

그리고 코스닥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 또한 높지 않다.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의 러셀지수가 비트코인과의 올해 상관관계가 0.35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뿐이다. 미국에서는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투자의 영역으로 진입하며 상관관계가 확인되지만, 국내는 아직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지 못했다. 따라서 투자의 주체도 많이 다르다. 즉, 코스닥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일부 개인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파급효과는 크지 않다는 생각이다.